자동차 키, 하나님 키

(창26:1~11)

1.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동차 열쇠, 하나님 열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자동차 열쇠, 하나님 열쇠'

자동차 문화가 이제는 생활화되고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자주 경험되는 일은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자동차 열쇠를 복사해야 될 상황이 주어집니다.

옛날에는 열쇠가게에 가서 길이만 맞으면 아무 열쇠나 괜찮았어요.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복사를 해 둡니다. 복사를 할 때에 현관 열쇠와 마찬가지로 열쇠의 이빨만 똑같이 정확하게 깎아내면 작동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열쇠라고 해서 자동차 손잡이 부분이 새카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송신기와 수신기를 합친 트랜스폰더(transponder)라는 송수신기 기능을 하는 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열쇠의 이빨이 맞아야 하는데 이빨이 맞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손잡이 부분의 칩을 통해서 차체와 교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차체에 등록되어 있는 열쇠의 번호를 차가 인식을 해야 시동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오천 원, 만 원이면 되었는데 요새는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모빌라이저 열쇠

를 복사하려면 10만 원씩 합니다.
이 자동차의 열쇠와 열쇠 구멍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이모빌라이저의 열쇠와 하나님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고 비유적으로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열쇠가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열쇠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완전히 단순한 쇳덩어리처럼 남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종교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가지가지의 종교가 많은데, 모든 일반 종교의 신과 아브라함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일반 종교의 신은 인간이 찾아갑니다.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인간들이 찾아가는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
다른 종교의 신들은 내가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거나,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을 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 신을 찾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찾아오십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갖고 신을 찾아 나서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므로 자기의 소원을 갖게 되고,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과제는 자기의 소원과 계획을 없애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시동이 걸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전해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출애굽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미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 연결고리인 이삭이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복된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삭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내게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과 약속이, 내 부분에서 구멍 나지 않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자동차 열쇠를 복사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3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을 되풀이 하십니다.
5절에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다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땅에 떨어지고 빗나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이 그대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내 법도를 지켰다, 내게 순종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열쇠 구멍이란 말입니다. 이 열쇠 구멍에 내가 열쇠를 집어넣어서 돌려야 내게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에 시동이 걸리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열쇠를 복사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시동이 걸려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내 소원, 내 계획 따위를 죽여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동이 걸리려면 내게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아브라함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이빨이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모빌라이저 열쇠를 복사할 때의 과정은, 첫 번째로 열쇠의 이빨이 똑같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손잡이에 차량과 교신이 될 수 있는 칩을 넣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기업을 삼아야 합니다.
기업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분만을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강의 이유로 삼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만족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차량과 교신하는 이모빌라이저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교신하고 나면 이빨이 같아야 합니다.
이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내게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삶이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삭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이 내 속에 그대로 기억되어 있다. 그 아버지의 삶 때문에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복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고 한 것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네 아버지의 삶의 모습에 너의 삶의 모습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끼워 맞춰진다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복들이 너에게 시동이 걸려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통해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물쇠가 되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의 자물쇠의 열쇠 구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열쇠 구멍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된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 열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고 돌려야 합니다. 이삭이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열쇠를 복사해서 그대로 한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이삭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여 주는 것은?
25: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브헬라헤로이라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흉년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800km나 이동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100년 뒤에 이삭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들어서 브헬라헤로이라는 곳에 있다가 좀 더 북쪽인 블레셋 땅인 그랄로 옮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있으므로 이집트로 내려갔었습니다. 이삭은 브헬라헤로이에서 북쪽인 그랄로 조금 이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에게 약속한 모든 복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랄 땅에 갔더니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서 있었던 아내를 놓고 벌어진 문제가 이삭에게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때의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족속에서 왕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다른 왕인데 똑같이 아내인 리브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요?
성경이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힌가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만 내용상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진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은 내려가겠다는 계획을 비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냥 놔두셨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과의 관계에서도 아브라함 때에는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똑같은데, 이삭 때에는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들여보내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상태였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왕궁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부부인 것을 알게 되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와는 다르게 한 단계씩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삭이 마음속에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계획하고 있었으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고, 리브가에 대해서도 아비멜렉에게 실제로 들여보내는 일이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놀랍니다.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논리적이냐?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간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억울한 누명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

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이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근이 들었지만 애착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훨씬 쉬워요. 아무렴 아브라함이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리라는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약속이 집합된 존재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므로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좋은 것을 약속해주셨더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축복의 내용물을 마음에 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삭처럼 막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있는 것을 증명해보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럼 이삭 때에는 왜 막았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이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야기했겠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주셨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마음에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이 실현되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인 너를 번제단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복된 약속을 해주시고, 어떤 복된 일을 허락하시더라도 절대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삭에게 해주었고, 이삭도 결박당하여 번제단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삭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모빌라이저 열쇠의 손잡이 부분에 칩을 넣어서 차체와 교신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의 마음에도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칩이 들어있었다고 다 된 겁니까?
열쇠가 들어가서 돌려지려면 열쇠의 이빨이 맞아야하므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에 그대로 자기의 삶을 포개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보여주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에 넣고 있었던 사랑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포개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삭에게서 그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네 엄마 사라가 얼마나 예쁘냐? 그러나 사라를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다. 사라를 마음에 담았다면 아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도 없었다. 치안부재의 타향살이 속에서 저렇게 예쁜 여자를 아내로 지킬 수가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으로 네 엄마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삶의 모습에 자기를 포개버리는 겁니다.
포개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리브가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지’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포개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리브가가 아비멜렉에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로서 성취했어야 하는 것이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성취한 것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일,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완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포개서 복사하는 거예요. 열쇠의 이빨이 똑같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모빌라이저 열쇠 안에 칩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갭니다.
그래서 열쇠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복된 계획에 비로소 시동이 걸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삭이 똑같은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야기되고, 똑같이 아비멜렉 왕과의 관계에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포개서 복사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앞당겨서 생활화한 것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 아내, 롯과 헤어질 때 땅, 그리고 아들인 이삭,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의 삶에 포개져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과 아내를 들여보내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취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일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포개겠다는 마음을 먹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과 고난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효과는 그대로 나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마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처럼, 리브가가 아비멜렉의 침실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십자가를 앞당겨서 생활화하고 있었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뒤따라가면서 생활화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포개져서 주님의 삶과 존재자체가 우리에게서 복사되어 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시동이 걸립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포개져서 주님의 삶이 주님의 존재자체가 우리에게서 복사되어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십자가에 포개져서 이빨을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함이고, 그러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시동이 걸리고, 열려져 나간다는 겁니다.

자동차 열쇠와 하나님 열쇠는 원리가 같습니다.
이빨이 맞춰지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포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기가 막힌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모빌라이저 열쇠를 복사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의 열쇠를 복사하고, 아브라함이 선취한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포개져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복사될 수 있는 열쇠가 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삶이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음을 믿어서, 이모빌라이저 열쇠에 트랜스폰더가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포개짐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포개지려고 했던 것처럼 열쇠에 이빨이 같아짐으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시동이 걸려서 성취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